

국제뇌교육협회 발행 뇌교육 온라인소식지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IBREA News 2008.5

뇌교육 글로벌 뉴스



해외 100개국에 지부를 두고 뇌교육의 연구, 보급, 인증 등을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로 미국 뉴욕에 세계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 뇌교육 세계화를 이끄는 중추기구 www.IBREA.org

[IBREA- World Wide]

□ 국제뇌교육협회, 유엔 DPI 정식회원 등록추진



국제뇌교육협회는 뉴욕에 개설된 미주뇌교육협회 사무소를 통해 유엔 DPI(공보처) 정식회원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엔공보처는 유엔의 전체 홍보를 담당하며 UN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이다. 국제뇌교육협회가 유엔 DPI NGO에 정식가입되면 뇌교육의 해외 보급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단태권도 도장 14곳 회원사 등록 및 협력단체 인증서 발부

단태권도 소속 14개 도장이 국제뇌교육협회 회원사 등록을 마치고 협력단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협력단체 인증서’가 발부되었다. 단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전통수행법인 ‘선도’의 맥과 홍익철학을 태권도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회원사로 등록된 단체들에게는 뇌교육전문지 <브레인>을 비롯해 각종 뇌교육 자료들과 세미나 등 뇌교육 정보가 제공된다.

□ 유엔본부서 개최될 제4회 국제뇌교육컨퍼런스 및 창립식 국가별 참가단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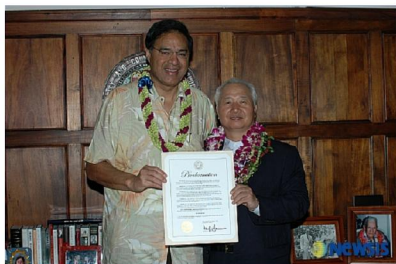


오는 6월 20일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4회 국제뇌교육컨퍼런스>에 참가할 한국 참가단 모집이 1차적으로 완료되었다. 한국참가단은 행사 공연단으로 초청받은 풍류도 공연단 20명과 참가단 3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참가단은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국제뇌교육컨퍼런스 이외에 유엔본부 투어와 뇌교육대학이 설립될 ‘Honor's Heaven Resort’에서의 뇌교육세계화 워크샵 참가 등 7박 8일간 진행될 뇌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참가단 구성은 뇌교육 교사를 비롯 교육관계자, 뇌교육단체 및 기관, 관련 기업체 담당자 등 다양하다.

한국 이외에 미국은 약 250명의 교육관계자들이 이미 신청등록을 마쳤으며, 뉴욕주 교장단과 교사들의 신청문의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일본은 약 10명의 참가단을 보낼 예정이며, 캐나다에서도 10명이 신청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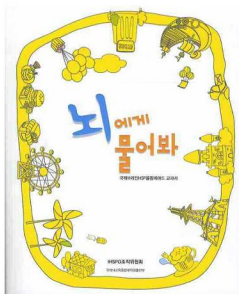
[IBREA- World Wide]

□ 하와이 호놀룰루시,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 공헌인정해 ‘일지리데이’ 지정



하와이 호놀룰루시가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의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 지난 5월30일을 ‘일지리데이’로 지정했다. 무피 헤너만 호놀룰루 시장은 “이번 일지리데이 지정은 지난 15년간 뇌교육이 호놀룰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노인 커뮤니티센터 6곳과 쿤스 메디컬센터, 아이아 커뮤니티 스쿨 등을 통해 시민 1000여명이 뇌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뇌에게 물어봐’ 두뇌올림피아드 IHSP0 교과서 출간



국제뇌교육협회 학술연구 분야 자문기관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은 5월 세계 유일의 두뇌올림피아드인 IHSP0에 대한 소개를 담은 『뇌에게 물어봐-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IHSP0 교과서』를 출판했다. 이 책에는 두뇌 올림피아드의 탄생과 역사, 대회 종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사진과 그림으로 소개했으며, 스스로 즐겁게 학습하는 법, 뇌기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뇌에게 물어봐> 캐릭터인 ‘뇌동이’와 함께 100% 두뇌활용을 위해서는 억지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학습하는 두뇌환경을 만드는 방법, 뇌기능을 높일 수 있는 뇌교육 프로그램 등 언제 어디서나 쉽게 따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 국민생활체육 전국국학기공연합회 협회 회원사 등록

전국국학기공연합회가 국제뇌교육협회 회원사 등록을 마쳤다. 국학기공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 가입단체로, 현재 16개 시도 연합회와 160개 시·군·구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각지의 노인정, 노인복지관, 공원, 학교운동장, 약수터, 병영생활, 직장 등 매일 3천여 곳의 장소에서 국학기공강사들은 20만 명의 국민들에게 국학기공을 지도하고 있다.

국학기공은 우리민족의 "홍익철학" 을 바탕을 둔 심신 단련법이며, 생명 활동의 근원이 되는 기(氣)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 30년 동안 8개국에 확산되어,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해오고 있다.



[IBREA-KOREA] 두뇌올림피아드 IHSPo 한국 16개 시도예선 공동주최



“New Challenge for the Brain(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란 슬로건을 가진 세계 유일의 두뇌올림피아드 IHSPo(International Brain HSP Olympiad: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 한국대회 전국예선이 국제뇌교육협회 지역국학원 공동주최로 펼쳐졌다.

4월 올림피아드 조직위에 신청한 학교별 예선을 거쳐, 전국 16개 시도 대회 등 총 8만여명의 초중고생들이 참가해 열띤 두뇌경쟁을 펼쳤다. 올해 4회 대회의 특징은 뇌교육의 공교육 확산으로 학교별 예선참가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뇌개발부문인 HSP 브레인윈도우와 응용부문인 HSP스피드브레인, HSP뇌감각인지, HSP뇌정보구조화, HSP Gym 등 총 5종목에 나누어 두뇌활용 및 개발능력을 선보였다.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 한국대회’는 (사)국제뇌교육협회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며, 본선대회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과 공동주최로, 지역대회는 해당 지역의 국학원과 공동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IHSPo 2008 국제대회는 약 10개국에서 국가별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8월 12일 미국 뉴욕서 개최된다.

IHSPo는 2005년 한국에서 창설된 국제올림피아드로 작년 미국 뉴욕서 개최된 국제대회에 7개국 대표단 800여명이 참가하며, 21세기 뇌의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올림피아드로 주목받고 있는 국제대회로 국제뇌교육협회가 한국대회 및 국제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국가별 대회가 6-7월 중 마무리되면, 해당 국가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국제대회가 IHSPo 창설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과 뇌교육의 세계기구인 국제뇌교육협회 공동주최로 오는 8월 12일 미국 뉴욕서 4회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 국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IBREA-KOREA] 10호째 맞은 뇌교육전문지 <브레인> 협회회원 제공



4월말 'YTN 월드사이언스포럼'의 첫 번째 주제로 '뇌'가 선택되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만큼 국내외로 뇌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내 유일의 뇌전문매체인 <브레인>이 10호를 맞이했다.

<브레인>은 한국뇌과학연구원이 2002년 발행한 <뇌>에 이어 뇌의 대중화 기치를 내걸고 발행하고 있는 뇌전문매체로, 건강, 교육, 과학, 문화 영역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 걸쳐 뇌를 중심으로 폭넓은 기사를 다루고 있어 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있어 훌륭한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프라인 상 이외에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뇌전문사이트 <브레인미디어>에 네티즌들의 호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1년전 개설 이후, 현재 월방문객이 15만명을 넘어서며 전문사이트로서 매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브레인미디어(www.brainmedia.co.kr)'에는 <브레인> 이외에 과거 발행했던 <뇌>의 모든 콘텐츠를 비롯해 뇌도서관 도 함께 운영하며 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호째를 맞이하는 이번 <브레인>에는 '100세 시대 장생두뇌전략'이란 특별기획을 다루어 중장년층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제뇌교육협회 한국 사무국은 한국회원들에게 브레인 10호를 5월 25일 일괄 발송하였다.

[주요기사]

- . 특별기획_ 젊음을 유지하는 100세 시대 장생두뇌전략
- . 인터뷰_ 장충식 범은장학재단 이사장
- . 뇌교육현장_ 아이들의 뇌력을 키우는 힘찬 몸짓 단태권도
- . 브레인과워_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국인의 가슴을 두드리다
- . 브레인코리아_ 부산광역시교육청 뇌교육 해피스쿨로 인성교육 활성화

